

보건교육과 의료문맹

김 성 수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의학실)

1. 목적

이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한국형 의료문맹측정도구 (KHLAT) 개발이다. 두 번째 목적은 이 결과를 토대로 보건교육분야 연구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보건건강교육 캠페인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의료문맹이란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2. 방법

데이터 (설문지)는 평생교육과정과 대학생등과 같은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최종 사용가능한 설문지 117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진은 REAL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의료문맹측정도구)을 번역한 후 한국적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다.

3. 결과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 국민들에 대한 OECD의 실질적 문맹률 조사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한국에서의 의료문맹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연구대상자의 대다수가 중학교 1-2학년 수준(43.7%) 또는 초등학교 학생수준(35%) 정도의 의료문자해독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국민 보건건강교육 캠페인 노력에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4. 결론

보다 나은 보건건강교육 캠페인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연구자들이 health literacy와 효과적인 보건교육(또는 커뮤니케이션)간의 중요한 상관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의사들이나 미래의 의사들에게 이를 알려주어 보건의료분야 모든 관련자들이 인식 전환을 할 기회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보건건강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중의 하나로서 health literacy를 이해하는데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